



내가 대학에서 만난 사람들

신 현 숙 | 상명대 교육대학원장

내가 대학 생활을 시작한 해는 1970년이다. 초등학교 교사로 지낸 2년을 빼고는 대학의 울타리를 벗어난 기억이 없다. 외국에서 지낸 몇 년도 대학 안에서 지냈으니 내 삶의 5분의 3을 대학 안에서 보낸 셈이다. 원고 청탁을 받고 나는 내 자신에게 질문을 하였다. 나는 30년 동안 대학에서 무엇을 하였는가? 명쾌한 대답이 떠오르지 않는다. 특별히 잘한 일도 생각나지 않는다. 무엇인가를 열심히 배우고 가르친 기억과 나의 모자람과 부족함을 일깨워 주시고 채워 주신 은사님들,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하여 노력하던 착하고 예쁜 학생들만 떠오른다. 결국은 대학에서 만난 사람들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재산인 셈이다. 오늘은 내가 대학에서 만난 좋은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생각해 본다.

나는 밝고 힘찬 표정을 가진 사람을 좋아한다. 나는 대학에서 2년 동안 음악반 학생으로 보낸 적이 있다. 2년 동안 합창단 지휘를 맡으셨던 선생님을 잊을 수가 없다. 언제나 밝고 힘찬 표정으로 합창 지도를 하시던 선생님! 선생님 열정에 이끌려 우리는 '신의 영광'을 정말로 멋지게 연주한 기억이 난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그렇겠지만 나는

대학이야말로 선생과 학생이 함께 만들어 가는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또 좋은 작품은 자신감으로부터 완성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이유로 나는 밝고 힘찬 표정을 가진 대학인—모든 사물과 사건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언제나 환한 표정,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힘있게 도전하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 정직하고 성실한 삶 속에서 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생활 속에서만 갖추어질 수 있는 밝고 힘찬 표정을 가진 대학인을 좋아한다.

나는 정직하고 솔직한 사람을 좋아한다. 또 정직하고 솔직한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진다. 우리의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고 서로 믿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나는 정직하고 솔직한 대학인을 좋아한다. 반면에 정직하지 않은 사람, 여러 가지 변명으로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사람, 결과 속이 다르거나 앞과 뒤가 다른 양면성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나빠진다. 대학 안에서 그런 사람을 만나면 내 기분은 더욱 나빠진다. 나는 대학인이야말로 사회를 이끌어 가야 하는 지도자라고 믿기 때문이다.

나는 예의바른 사람을 좋아한다. 예의가 바르다

“

나는 정직하고 솔직한 사람을 좋아한다. 또 정직하고 솔직한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진다. 우리의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고 서로 밀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나는 정직하고 솔직한 대학인을 좋아한다.

”

는 것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갈고 닦았음을 뜻한다. 선생님의 정겨운 말씀이나 태도, 또는 학생의 예의바른 말이나 태도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을 때가 있다. 특히 나는 국어교육과에 재직하고 있는 터라 언어생활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다. 어떤 때는 정겨운 말 한 마디에 또 어떤 때는 예의바른 말 한 마디 때문에 상대방을 좋은 사람으로 평가하기도 하고 열심히 칭찬하기도 한다. 반면에 대학 생활을 하면서 가끔 기분이 나빠질 때가 있는데 선배나 동료의 불쾌한 농담이나 행동 또는 후배나 학생의 버릇없는 말이나 불손한 행동 때문이다. 버릇없는 말 한 마디 때문에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다. 대학에서 우리 자신은 무엇을 실천하고 또 가르치고 배울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담긴 예의바른 태도가 아닐까? 내 자신에게도 질문을 해 본다.

나는 친구를 사랑하는 사람—옆에 있는 선배, 후배, 친구를 사랑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선배가 잘하면 큰 박수를 치는 사람, 후배가 잘하면 이낌없이 칭찬하는 사람, 친구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는 사람, 그런 마음이 가득한 아름다운 대학인을 좋아한다. 나는 가끔 선배와 후배를 향하여 또 친구를 향하여 아름답지 못한 마음을 표현하는 대학인, 자신만을 위하여 옆도 안보고 뛰여가는 지나치게 똑똑한 대학인, 자신의 이익을 재빠르게 계산하는 영리한 대학인을 보면서 씩씩한 느낌이 들 때

가 있다. 그때마다 조금은 늦더라도 누군가와 함께 걸어가는 대학인, 조금은 부족하지만 친구를 배려하는 대학인, 계산된 친구 관계보다는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는 대학인이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지도자 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

나는 자신보다는 우리를 생각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보다는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챙겨 주는 그런 사람을 좋아한다. 우리는 흔히 대학을 최고의 두뇌와 최고의 학력을 가진 대학인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한다. 그런데 대학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빠르게 움직이는 대학인을 만날 때가 있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대학도 생존경쟁의 장이 아니겠어'라는 생각이 든다. '가끔이라도 나보다는 우리를 위하여 나의 미래보다는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는 없을까? 우리를 생각하는 대학인—나보다는 우리 학과를, 나보다는 우리 학교를, 나보다는 우리나라를, 나보다는 우리가 사는 우주와 자연을 생각하는 대학인이 된다는 것이 정말로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일까? 나도 내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를 위한 것이야말로 나를 생각하고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또 다른 질문을 해 본다.

“

내가 만난 좋은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좋은 평가를 받을 자신도 없고 아직 좋은 평가를 받으리라고
 기대하지도 않는다. 다만 앞으로 내가 만나는 좋은 사람들에게는
 가능하면 실망을 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한다.

”

나는 지능지수보다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을 좋아한다. 지능지수가 높은 선생님보다는 감성지수가 높은 선생님, 지능지수가 높은 학생보다는 감성지수가 높은 학생을 만나는 것이 즐겁다. 일반적으로 대학은 학문을 갈고 닦는 곳이라고 한다. 그러나 학문의 업적이나 성과가 지능지수와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내 경험에 따르면 지능지수가 높은 사람보다는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이 더 많은 학문 업적과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정진하는 학문이라 그런지 그 내용 또한 탁월한 경우가 많다. 나는 인사하는 마음, 꽃을 사랑하는 마음, 음악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감성지수를 평가한다. 우선 인사를 잘하면 높은 점수를 준다. 그리고 꽃과 음악을 좋아하면 그 점수는 거의 만점에 가깝다. 그러나 요즈음은 내가 정한 기준에 맞는 감성지수가 높은 대학인을 찾기는 쉽지 않다. 지능지수에 대한 한국 사회의 기대가 너무 큰 탓으로 여겨진다. 인사를 잘하는 것보다는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나 영어 구사 능력이 중요하다는 우리 사회의 기대 때문인지 가벼운 인사조차 제대로 하는 대학인을 찾기 어렵다. 대학 교정에서 “선생님!” 하고 부르는 소리를 듣는 것도 쉽지 않다. 어쩌다 교정에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고 큰 소리로 인사하는 감성지수 높은 학생을 만나면 그 날 하루는 기분이 좋다.

나는 질문이 많은 사람을 좋아한다. 열심히 가르


치시는 선생님보다는 다양한 질문으로 학생을 괴롭히는 선생님이 좋다.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선생님과 정색을 하시면서 반론을 제기하시던 선생님! 나는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하여 또 반론에 맞서기 위하여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열심히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난다. 그 때마다 우리 선생님은 “그 정도 설명하고 항변할 수 있으면 되었다.”는 칭찬 아닌 칭찬으로 끝을 맺으셨다. 학생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가르쳐 주신 정말 멋진 선생님이 아니신가?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학생을 몇 차례 만난 적도 있다. 수업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손을 들어 질문을 던지는 학생, 만날 때마다 “이런 자료는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호기심 많은 학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질문하는 탐구파 학생, 이런 학생들이야말로 내가 대학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다. 스스로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 이들이야말로 대학을 대학답게 만들어 가는 주인공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대학을 대학답게 만들기 위하여 끝없이 질문하고 또 그 질문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오늘도 질문이 많은 대학인을 만나면 우리의 꿈이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된다.

그러나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이다. 편견이나 선입관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

게 생각하는 사람, 자신의 생각을 거리낌없이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이익이나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좋다. 대학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면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처럼 기분이 좋아진다. 대학이야말로 새로운 생각을 주조하고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자유로운 생각과 행동이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무엇인가에 사로 잡혀 있거나 묶여 있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숨막히겠는가?

이밖에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또 있다. 밤늦도록 연구실에서 원고를 작성하고 수정하는 대학인, 밤낮으로 실험실을 떠나지 않고 실험 결과를 기다리는 끈기 있는 대학인, 무엇인가를 새롭게 만들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창의적인 대학인,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도전하는 힘있는 대학인, 전공 분야의 깊이와 함께 관련분야에 대한 넓이가 넉넉한 여유 있는 대학인, 모든 사물과 사건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진 공명정대한 대학인, 자신이 세운 목표와 미래를 향하여 꾸준히 노력하는 굳은 의지의 대학인, 시간과 공간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실용적인 대학인, 언제라도 차를 한 잔 나눌 수 있는 다정다감한 대학인,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봉사정신이 투철한 대학인, 나는 이런 대학인이 좋다.

오늘은 내가 대학에서 만난 아름다운 사람들을 생각해 보았다. 언제나 부럽고 본받고 싶었던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대학을 대학답게 만드는 사람들, 나의 대학 생활을 즐겁게 만들어 주는 사람들, 우리의 미래 사회를 더욱더 풍요롭게 만들어 가는 사람들을 생각하다 보니 나 자신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진다.

그러면 내가 만난 좋은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좋은 평가를 받을 자신도 없고 아직 좋은 평가를 받으리라고 기대하지도 않는다. 다만 앞으로 내가 만나는 좋은 사람들에게는 가능하면 실망을 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한다. 특히 내가 대학에서 만난 좋은 사람들, 나의 삶을 아름답게 꾸어 준 사람들에게는 나의 즐거움과 기쁨을 되돌려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신현숙

인천교대 음악학과와 상명여대 국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건국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하와이대 동아시아 언어학과 초빙교수, 상명여대 국제교류부장, 한국어세계화재단 이사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상명대 국어교육학과 교수로서 상명대 교육대학원장,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회장, 담화-인지언어학회회장 등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 및 논문으로는 『의미 분석의 방법과 실제』, 『한국어 현상과 의미 분석』,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어휘 정보 : (사람(들))』, 『21세기 담화 의미 연구 방향』 등이 있다.

